

컴퓨터출판이 오히려 책을 망치고 있다

편집의 기본을 깨는 무책임한 실험 적지 않아...인이한 책만들기 경향

임종기

자유기고가

워드프로세서의 보급은 우리의 글 쓰는, 책 만드는 문화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기업체나 작은 단체의 소식지, 회보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숙제에도 워드프로세서는 기본이 되었다. 게다가 이전에는 사식집이나 전문 편집 회사에 의뢰했을 경 인쇄용 조판까지도 대부분 워드프로세서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른바 DTP(desktop publishing)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에당초 DTP는 사무자동화의 일환으로 기업체의 보고서, 팸플렛, 사보 등의 편집을 위해 만들어진 애플사의 '페이지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붙여진 명칭인데, 이후 전문적인 출판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서체를 포함하며 조판 기능을 강화시킨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 보석글, 한글, 사임당, 한글워드 등은 워드프로세서이며 오토페이지, MY-DTP, 문방사우, 한글페이지메이커 등은 DTP용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DTP용 프로그램이 기능이 좀더 많은 만큼 가격도 몇배나 비싸다. 그러나 이 둘의 구분과 경계는 갈수록 허물어지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워드프로세서의 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단행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고 입력에서부터 교정지 출력, 교정, 수정작업, 재교...를 거쳐 출력소에다 맡겨 인쇄지를 찾는 다음 다시 대지 위에다 판면에 맞게 붙이는 공정이 필수적인 것이었다. 상당한 노력과 주의, 경비를 들여야 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그 절반도 안되는 기간과 노력을 들이고서도

가능해진 것이다.

일 년전쯤 대우재단 전문위원인 김대식씨가 「소금값을 청구함」이라는 소설집을 내면서 혼자서 입력, 수정, 출력까지 자신의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해 다 해낸 것은 그 당시로서는 뉴스거리가 될 정도였으나 이즈음에 와서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게 되었다. 이미 상당수의 출판사들은 입력, 수정, 조판, 출력의 과정을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책상 위에서' 다 처리해내고 있다. 물론 상업용 잡지처럼 레이아웃이 복잡하거나 컬러사용 등의 전문적인 출판물의 질은 아직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과거 맥킨토시 시스템에서 가능하던 전문 DTP 프로그램인 Quark XPress가 IBM호환기종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으며 다른 DTP 프로그램들도 본격 출판에 걸맞은 기능을 보강하게 될 것이다.

유행처럼 번지는 DTP

이처럼 컴퓨터와 출판이 만나 일으킨 화학 반응은 대단한 것이다. 이른바 '전자출판' 또는 '컴퓨터출판'이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어냈으며 굳이 전문 출판인이 아니더라도 어렵잖게 편집을 해낼 수 있게 되었기에 편집을, 출판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났다. 출판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데는 좌우간 일조한 셈이다. 하이텔과 천리안의 사용자 중 동호회 차원에서 구성된 컴퓨터 출판협회는 이러한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체이다.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던 하나 대부분은 컴퓨터를 웬만큼 사용할 줄 알면서 그

컴퓨터출판이 널리 사용되면서

생겨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가 이른바

컴퓨터만능주의로, 이는 나아가

'컴퓨터가 출판을 해준다'는

생각으로까지 연결된다. 편집의

기본약속을 깨는 무책임한 실험의

남용도 문제다. 컴퓨터로 인해 훨씬

수월해진 기교나 장식이 오히려 책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것을 이용하여 '출판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거나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래서 하이텔이나 천리안의 컴퓨터출판동호회에 들어가면 편집에 대한 이론과 컴퓨터출판 환경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소개, 설명이 메뉴의 기본을 이룬다. 이 협회 사무국장 이철영씨(우신사 편집부장)는 "컴퓨터의 보급과 깊은 연관이 있겠지만 출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출판물을 얻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면서 양적인 확대뿐 아니라 출판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 과정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것이 이 협회가 추구해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덧붙인다.

지난 18일부터 출협 강당서 열린 '컴퓨터출

판협회 정기강좌'는 바로 컴퓨터와 출판을 하나로 묶어 보려는 자리였다. 즉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출판을 좀더 잘 알고 싶었던 것이고, 또 기왕 출판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컴퓨터라는 문명에 대해 잘 알아야겠다고 이 강좌를 신청한 것이다. 또 디자인학원이나 컴퓨터학원의 교과과정 중에도 DTP는 으레 끼여있기 마련이다.

워드프로세서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DTP에 대한 예찬론은 그 보급된 수효만큼이나 대단하다. 서울대 강석호 교수(산업공학과)는 "DTP는 출판작업의 일관화로 인력 및 시간의 대폭적인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또 그림 및 사진의 처리가 원활하며, 인쇄과정에서도 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정을 즉시 가능케 하여 시간을 다투는 출판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특히 오자의 확인과 수정도 컴퓨터가 담당하여 부분적 내용변경과 수정이 즉시 이루어져 학문발전 속도와 맞추어 책의 보완이 손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필요로 하는 인쇄물은 스스로가 출판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어느 누구도 제작이 가능하다"며 DTP의 보급이 학문과 문화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컴퓨터출판이 널리 사용되면서 생겨나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는 이른바 컴퓨터만능주의이다. 컴퓨터는 편리하고 유용한 것이며 마음먹은대로 못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그 바탕을 이루며, 나아가 '컴퓨터가 출판을 해준다'고 까지 여기는 측도 있다.

미국 서적상협회(ABA) 도서전시회 및 제5회 중국 북경국제도서전시회 참관단 안내

ABA 전시회참관+미국서부+하와이(9일간)
요금 ₩1,150,000
출발일 5월 27일
로스앤젤레스(3박)→리플린(1박) →라스베가스(1박)→하와이(2박) →기내(1박) * 전시회참관 Full 2일

ABA 전시회참관+미국서부+하와이(8일간)
요금 ₩1,050,000
출발일 5월 28일
로스앤젤레스(2박)→리플린(1박) →라스베가스(1박)→하와이(2박) →기내(1박) * 전시회참관 Full 1일, 1/2일

ABA 전시회참관+미국서부+L.A(6일간)
요금 ₩999,000
출발일 5월 28일
로스앤젤레스(4박) 기내(1박) * 입장료 포함 * 전시회참관 Full 3일, 1/2일

문의전화

中國 북경국제 도서전시회(8일간)
요금 ₩1,350,000
출발일 8월 31일
북경(3박)→연길(1박)→ 백두산(1박)→장춘(1박)→ 상해(1박) * 전시회 참관 Full 하루

※특별가 항공권 ₩492,000부터



삼익출판여행정보센터
(株)三益觀光

문의전화 773-3131

안덕원
김정문
최훈희

중학생 대상의 독서교양 학습지

「열린 생각 좋은 글」

대입 수능능력고사가 우리의 교육환경에 안겨주는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이전과는 달리 학생들의 학습의 형태와 욕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교사에 이르기까지 종래의 수업방식을 탈피해 체계적인 생각과 분석적인 사고력의 배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맞추어 교양 독서식 학습방법을 지향하는 일간지들이 많이 창간되어 있는데, 「열린 생각 좋은 글」도 같은 맥락에서 있는 잡지라 할 수 있다.

KBS 문화사업단 출판부에서 지난 4월 창간호를 낸 이 잡지는 변화하는 학습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언어능력 향상 및 논리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교양전문지, 학생 개인의 잠재력을 창의력으로 발휘하게 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아래 신교육제도를 주도하고 있다. 대학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했다고 한다. 자신의 의견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글을 읽은 후 정확한 뜻을 짚어내는 논리적인 사고는 비단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전유물을 아니라는 측면에서 중학교에서부터 이 훈련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열린 생각 좋은 글」은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집필자,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원, 본고사 출제위원을 비롯한 대학교수 등이 직접 집필했다. 이러한 점은 여타의 독서교양잡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사항이지만, 그 내



용에 있어서는 깊고 넓은 심도를 유지하고 있다.

창간호에는 '교과서진도에 맞춘 읽을거리들', 선생님의 매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토론, 자신의 글쓰기실력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글쓰기교실', 생각과 말의 이치를 쫓아가는 '논리교실'이 실려 있다.

또한 특집으로 '10가지 힌트만 알면 나도 우등생'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그 비결은 공부에 좋은 환경 만들기, 계획 세우기, 효과적인 공부방법 찾기, 올바른 수업태도 갖기, 노트하기, 밑줄 긋기, 싫은 과목 공부 더하기 등인데 이와 더불어 기억력 높이는 법, 학습능률을 올려주는 체조도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 밖으로 떠나는 독서여행'도 읽을거리다.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하고 편집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막강해진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구의 수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컴퓨터출판은 출판의 여러 형태 중의 하나이지 그 자체가 독립된 새로운 분야는 아니다. 출판은 이미 오랜 세월을 걸쳐 이루어진 인간의 정보전달, 보관에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수단이며 그에 맞는 약속이 맺어져 있다. 그 약속은 매체의 다양한 변용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최근 컴퓨터출판을 보며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속도주의와 기능주의의 회오리 속에서 바로 그러한 약속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편집의 기본 안 지켜지는 출판물의 범람


컴퓨터출판의 당위성과 효율성을 내세우는 이 가운데는 컴퓨터에 대한 숙련도는 높아도 출판의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기본적인 약속에 대해서는 막연하거나 어설픈데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 심지어는 워드프로세서를 좀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펴내는 수많은 매뉴얼북(manual book)조차도 편집의 기본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식용으로서나 겨우 쓰일만한 이상한 활자의 남용, 뼈딱한 글자(사체)의 사용, (특히 제목류에 있어서)글자 사이마다 점이나 사선을 유용없이 넣는 경우, 글줄을 물결처럼 오르락 내리락하거나 둥글게 만드는 것, 앞세우기 글자를 수시로 내세우는 것, 약물과 활자의 남용 등은 정작 중요한 내용 전달에는 별 도움이

못되고 오히려 종이를 파먹는 벌레처럼 보이기도 할 지경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변에서는 기교를 부리고 장식을 멋드러지게 하며 희한한 것을 쓸 줄 알아야 그게 편집을 잘하는 줄이는 '아마추어 출판인'이 많다.


책의 조판을 위한 약속에는 이유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글자는 어떤 때 어떤 서체를 얼마만한 크기로 사용해야 하며, 장평이나 자간, 어간은 어느 정도여야 하며 글자 크기와 행간, 행송, 행장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등의 타이포그래픽적인 문제는 모든 책만들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일반인들이 그러한 이론적인 지식을 제대로 갖추고 책만들기란 쉽지 않은 일일 터이지만 적어도 그러한 규칙이 있다는 것과 최소한의 약속은 지키는 것이 결국 보기좋은 출판물이 되는 정도이다.

글쓰기, 책만들기를 위한 편집용 소프트웨어는 웬만큼의 수준을 갖췄다고 판단된다. 자칫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일반 사용자들이 자신의 작업에 있어 또 하나의 하드웨어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아무튼 누구든지 마음 먹은대로 출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며, 다만 그 양적인 증가만큼이나 질적인 완성도도 높은 출판물이 당연한 현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무실 오아시스?!

오늘은 주차 할 수 있을까?????
 복잡한 출근 길마다 생각해야 하는 문제들.....
 ✦ Fresh Air/맑은 공기 Silent Area/조용한 주변 환경
 ✦ PARKING FREE!/무료주차!
 ✦ SIZE FREE!/필요면적에 따른 임대!
 ✦ 충무로에서 15분 거리/세검정
 ✦ 전화문의 395-9995



**사무실
임대**

사원모집

인원: 약간명
(경력/신입)
분야: 총무/편집

☎ 탐출판사
☎ 379-9999

